

#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SPRING 2017 | VOL. 185



**봄 이야기**

한때 켈거루스토어에서 자립을 꿈꾸던 이선미 씨는 이제 어엿한 수재점·수재청 가게 사장님입니다.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녀는 이 공간을 통해 아들 대유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다른 미혼한부모들의 자립과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죠. 이 모자의 달짝지근한 이야기, 함께 들여보시지 않을까요? (6P 계속)

사진 | 이록 사진작가·Looks Studio

- 04 사업 소개
- 06 싱글맘 Jump with baby
- 09 Love In World
- 1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14 홀트 인터뷰
- 17 아름다운 행복
- 18 행복한 가족 만들기
- 20 희망풍경 1
- 22 희망풍경 2
- 24 나눔기업
- 26 나눔이웃
- 28 홀트 게시판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5호·계간 **발행일** | 2017년 3월 14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백상옥(자원개발실장), 감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해성(아동양육팀장), 유덕진(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b>본부</b> <b>전국미혼모지원센터</b>	T.02)331-7000 T.1588-7501
<b>지방사무소</b>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b>부속기관</b>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미추홀	T.070)8210-160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b>미혼모가족복지시설</b>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광주클로버	T.062)361-5900
<b>국제개발협력사업</b>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네팔(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 홀트가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함께 할 동반자를 모십니다.

새해에는 직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휘어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홀트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홀트가 하는 복지사업에 격려와 후원 그리고 자원봉사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트는 새해에도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입양, 입양 후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 장애인이 재활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이들 300명을 위한 지원사업(꿈동이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을 돕는 '곳곳한 엄마', '켈거루스토어', 주거 지원,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미혼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홀트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다른 빈곤한 국가에 나누기 위해 시작한 해외지원 사업(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과, 국내외 결연 후원 '허브'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강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축하여 강동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과 일산복지타운(장애인 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치료실 및 병원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마련하는 것, 탄현동 농장 부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계획 등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홀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시설 현대화와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중단 없이 펼쳐 나갈 때, 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올 한 해도 홀트와 함께 먼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시41:1)

회장 김대열 드림

## ‘사랑을 행동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홀트의 미션입니다.



### 홀트의 시작은 ‘사랑’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결연 후원을 넘어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 사업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전 재산을 바쳤으며,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다 숨을 거둔 해리 홀트 씨는 그가 손수 일군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한부모, 장애인, 저소득 계층, 다문화가정까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해외 빈곤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입양인 친가족 뿌리 찾기, 국외 입양인을 위한 모국 방문 및 모국 정착 지원, 통·번역 서비스, 민박 지원 등 모국 문화와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보호 사업

• **영유아 가정위탁보호**  
계획되지 않은 임신, 빈곤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00여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홀트는 영유아들의 신체·정서 발달을 위해 1966년부터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 • 교육 및 의료 지원

만 1세 이상 아동들의 신체·사회적 발달 도모와 발달지체 아동들의 지능·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홀트위원을 운영, 전문 의료진이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영아원 운영

• **전주영아원 운영**  
빈곤, 가정 해체 등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영·유아를 위해 전주영아원을 운영하며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 국내 사업

### 입양복지사업

#### •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상담소 운영

1957년 국내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전국 9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683명(총 20개 여 개 기관)의 국내 입양아동 중 186명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연결된 만큼 믿음과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 입양인·입양가정 지원 프로그램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 상담과 교육, 가족 캠프, 입양가족 자조모임인 홀트한사랑회를 지원, 행복하고 건강한 입양가정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 • 위기 상담 및 빈곤 미혼한부모가정 생활 지원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한부모와 가족, 그리고 아동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지원, 아동 장래 상담,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교육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청소년 미혼한부모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인 홀트고운학교를 설립, 중·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에서 7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숙식과 의료제공,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립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물품 지원 ‘365 베이비 케어 키트’, 직업 훈련 및 자립 지원 ‘캥거루 스토어’, 싱글맘 아동 양육 지원 사업 ‘갯갯한 엄마’, 안정된 아동 양육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일산복지타운·요양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보호작업장 등 이용시설을 운영하며 맞춤형 재활치료와 교육훈련, 자립활동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소리’ 장애인합창단, 홀트휠체어농구단 등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복지 사업

#### • 지역사회 복지 향상 및 교육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운봉종합사회복지관·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희망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1982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9,063명에게 약 3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전국 300명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심리상담센터

정서·행동·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해 대구, 인천, 광주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심리 상담과 언어·놀이치료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하남 등 5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의 적합한 모금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해 전국에 홀트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아동학대 예방 사업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홀트미추홀(학대피해아동쉼터)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가족 성장에 따른 교육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해외 사업

#### • 국제개발협력 사업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홀트드림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교육, 보건, 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아동 초청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달콤한 수제잼 한 스푼에 꿈과 용기를 ‘품다’

번화한 흥대 거리의 어느 골목 끝자락,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가게 하나가 소담스레 앉아 있습니다. ‘품다’라는 간판 아래의 문을 살짝 밀자 와락 안겨오는 달짝지근한 과일잼과 과일청 냄새가 갖은 슬픔을 짚어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한 미소를 머금은 선미 씨를 닮은 듯합니다. 한때 썬더루스토어에서 자립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어엿이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또 다른 미혼한부모를 도우며 완벽한 자립을 꿈꾸는 지금, 비로소 그녀는 행복이란 이름을 향해 조심스레 한 발씩 내딛는 중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찾기 힘드셨죠?”

단아한 미소, 상냥한 목소리를 지닌 오늘의 주인공 이선미 씨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내오며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암전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들 대유(6세)도 명랑하게 인사하는데, 그 목소리에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장난 치고, 질문하고... 어린이집 봄방학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호호.” 재질재질 수다 떨고 장난치는 모자의 모습이 마치 친구와도 같습니다. 엄마를 스스럼없이 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대유가 신기합니다.

“사실 말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말 트이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주변에서는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어느 순간 말이 트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말로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쉼 없이 얘기한답니다(웃음).”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선미 씨에게 하루 24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부터 장을 보고 잼과 청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속절없이 흘러가곤 하죠. 무방부제 제품이다 보니 유통기한이 짧아 매일 5종류의 잼을 3kg씩 만들어두곤 하는데, 제품의 특성상 끓이는 내내 불 앞에 서서 저어주어야 하는 탓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말이 3kg이지, 총 30병 분량이니 재료 정리부터 병 소독, 포장 등까지 혼자 해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에게는 모든 게 즐겁기만 합니다. 나만의 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들 대유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들었던 지난날과 비교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꿈속과도 같습니다.

### 엄마와의 추억과 홀트가 불어넣어준 용기로 펼치게 된 꿈

선미 씨는 이전에 수많은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으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오는 동안 ‘움직이는 만큼 소득이 발생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정말 열심히 일하며 생활력을 키웠습니다.

“아이 아빠를 만난 후 또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불법 대출 등



그 가족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설상가상,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안 후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대유가 태어난 지 정확히 15일 후 상황을 정리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고, 지인의 소개로 홀트와 인연을 맺게 된 게 그녀에게는 큰 행운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족하고 모르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의지가 약해지거나 고민이 있을 때도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썬더루 스토어에서 받은 도움이 컸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어요. 많은 미혼한부모의 고민이 경제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미혼한부모의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대개 80만원 정도인데, 그 이유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자립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홀트미혼한부모지원센터 선생님들처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된 덕분이죠.”


육아와 병행하기에 어떤 일이 좋을까,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녀는 과일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신이 대유만 한 나이일 때 어머니가 과일 노점을 운영하셨는데, 상하기 시작한 과일을 가지고 와 잼으로 만들던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엄마는 무척 아까워하고 속상해 하셨지만 어린 선미 씨에게는 온 집안에 퍼지던 향긋한 내음과 엄마가 있던 풍경이 여전히 따스하고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품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도 생각해봤는데 아이가 아프면 일주일 정도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면 음식 맛이 달라질 테고요. 여러 모로 수제잼과 수제청이 좋겠다 싶었죠. 일단 아이템을 정하고 나니 구체적인 창업 조건은 금세 떠올랐어요. 지금이 적으니 일단 공간은 작을 것, 고정비용이 적을 것 등...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죠. 그간 모은 걸 다 끌어 모으고 건물주에게 사정사정해서 보증금을 낮춰 계약을 했고, 조금씩 가게를 꾸미고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폼다’라는 가게명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품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과 대유는 물론, 다른 미혼한 부모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은 세를 내기도 빠듯하지만 훗날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면 미혼한부모를 위해 후원도 하고, 창업 과정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하는 등 작은 역할이라

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홀트와 (주)롯데리아에서 주최하는 돌잔치에 잼을 후원하고 있어요. 경험해보니 잔치에 참석하셨다가 가시는 분들께 작은 감사의 표시라도 하지 못하면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대유 돌잔치 때도 만들어서 선물했었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별것 아니지만 제가 만든 잼을 통해 정성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녀는 “사업을 시작하면 당장 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예상했다”면서 수줍게 웃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도움받는 것에 비해 갚을 수 있는 것이 적어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선미 씨. 그녀의 어여쁜 마음만으로도 홀트와 미혼한부모에게는 이미 사랑과 용기가 충만해진 듯합니다. 

## 건강한 고민과 사랑을 담은 수제잼·수제청 전문점 ‘폼다’

‘보다 몸에 좋은 음식이 없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폼다’는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수제잼과 수제청을 지향합니다.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 시판 제품과 달리, 설탕 대신 직접 만든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칼로리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재료 선정과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 포장까지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가격은 높게 책정되는 편이지만, 한 번 맛본 분들은 금세 단골이 되곤 합니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성껏 말린 꽃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포장은 서비스!

크랜베리·블루베리·유자·오렌지·트로피컬·체리·딸기와 같은 과일 종류는 물론 말차·얼그레이·루바브 등 차 종류도 끊임없이 개발하며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3길 49-15 102호(상수동 315-7)

● 문의 : 070-4156-6920



## 내가 달리는 이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캄보디아의 12월.

평균온도가 30도에 이르는 덥고 습한 날씨에 111km의 길을 달린 청년이 있습니다. 무거운 배낭과 신발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떠올렸다는데요, 고난의 과정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긍정 청년 김영록 군의 앙코르와트 슈퍼레이스 도전을 들어봅니다.



## 나의 첫 도전 그리고 홀트

김영록 군은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최, 교육부 후원) 31기로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봉사를 가면서 홀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와야지 다짐하면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배운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그. 가진 것 없는 빈민촌의 아이들이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랑과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받은 영록 군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빈곤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가?'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충분히 여건은 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는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해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도전의 시작은 사막에서 출발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6박 7일간 자급자족하며 250km를 달리는 마라톤을 다녀온 것입니다! 영록 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앙코르와트 슈퍼레이스, 일명 캄보디아 정글 마라톤 111km에 참여하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달리기로 합니다. 111km를 완주하여 111만원만큼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자! 그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1 소중한 인연의 시작. 홀트드림센터 아이들과 함께  
2 극한의 도전 사하라 사막 달리기  
3 앙코르와트 슈퍼레이스 완주를 기념하며

1

## 캄보디아를 달리다

늘 웃고 있어 '긍정록'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록 군. 하지만 캄보디아 정글 마라톤은 웃을 수만은 없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의 더운 날씨,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 따가운 햇볕과 싸우며 3일 동안 111km를 달려야 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냉장과 속의 시원한 물 한잔, 청량한 콜라 한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났습니다. 씻을 수 있는 샤워실과 편안한 소파도 그리웠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걷고 달릴 수 있는 건강한 다리의 소중함을 비롯하여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봉사를 통해 만났던 홀트드림센터 아이들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을 이겨내고 달렸습니다.

힘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며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던 현지인과의 만남과 소통은 장거리의 코스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순수함에 영록 군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 멋진 도전에 함께 응원합니다

영록 군이 멋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해연 시티헌즈컴퍼니 대표인데요. 홀트에서 두 아들을 입양하고, 홀트입양가족 모임인 한사랑회 회

장도 하셨었지요. 유해연 대표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라고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두 아이를 입양하면서 받은 사랑을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또한 영록군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을 위해 달린다는 내용의 SNS를 보고 후원금을 보내준 분까지. 이렇게 모인 121만원의 후원금이, 사랑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낸 영록 군 덕분에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앞으로 김영록 군은 달리고 또 달릴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330km를 달리는 희망 마라톤도 참가하고, 특히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캄보디아와 몽골, 네팔, 탄자니아의 마라톤에 참가하여 가난으로 꿈을 이룰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올해는 6월에 있을 몽골 고비사막 250km 마라톤에 참가하여 몽골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전해준 순수한 미소 그리고 행복이 영록 군을 계속 달리게 하는 원천이 되었고 또 그 달리기가 아이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사랑의 꼬비우스의 피가 되었습니다. 청년 김영록 군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계속 달릴 것입니다.

\*김영록 군의 몽골고비사막 마라톤을 통해 홀트드림센터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해외사업팀(02-331-7085)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글\_유덕진 팀장 · 해외사업팀

2



3



## 희망의 새싹이 동훈이에게도 피어나길



### 밤낮없이 우는 동훈이

동훈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입니다. 걷고 뛰며 말썽 부리고, 엄마 아빠에게 재롱을 피울 나이이지요. 동훈이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겨우 혼자 뒤집고, 아직 젖병을 빨지 못해 코에 튜브를 연결하여 수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때는 체구에 비해 머리가 큰 것 외에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동훈이는 밤낮없이 괴롭게 울었고 수유 후 구토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으로 검사해 본 결과, 원인불명의 뇌출혈과 뇌실 확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훈이가 보이는 모든 증상은 뇌실 확장증 때문이며, 하루종일 괴롭게 운 이유 또한 뇌압이 높아져 생긴 두통 때문이었습니다.

### 동훈이를 위한 간절한 기도

위탁모는 심하게 우는 동훈이를 달래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끔 눈을 맞추고 웅얼이를 하며 웃을 때면 금방이라도 다 나온 것 같았지요. 약 처방으로 좋아지는 듯했던 동훈이의 증세는 생후 4개월 무렵 다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경련 발작을 일으키더니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심폐 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훈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머릿속으로 튜브를 삽관하여 피와 물이 소변으로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몸으로 받은 두 차례의 큰 수술은 동훈이에게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동훈이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훈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위탁모는 아이에게 전달할 따뜻한 우유를 넣은 보온병을 들고 다니며 하루 두 차례씩 중환자실 면회를 다녔습니다.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보낸 43일. 퇴원 무렵의 동훈이는 약간씩 시력을 회복하였고, 귀 가까이에서 위탁모가 이름을 불러주면 희미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희망찬 봄을 기다리며

위탁모는 동훈이를 돌보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잘 받는 어린 동훈이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대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훈이는 위탁모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2차례 구강 재활치료를 받고, 홀트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지 장애와 발달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서 일반 가정 대신 어찌면, 장애인 시설에서 평생을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난 동훈이가 차가운 눈 속에서도 깨끗한 소나무처럼, 아픔을 잘 견디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글\_표미연 · 아동양육팀



1 수술을 기다리는 동훈이  
2 작은 몸에 연결된 여러개의 튜브

동훈이는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홀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동훈이와 같은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 “아낌없는 사랑을 만난 저도,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홀트 패밀리·CCM 가수·전도사

박요한 님



## Interview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도 여느 입양아들처럼 방황의 시기를 겪었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도로 인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여 전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 ‘요한의 고백’ 한 권을 써내는 동안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절절한 사랑을 오롯이 경험함으로써 내면에 어떤 원망과 상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며, 홀트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생모도 그 덕분에 있는 그대로 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꿈꿨습니다. 일상 속 사역을 통해 자신과 같은 사람,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치유해줄 수 있기를... 그가 오늘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박요한 님(이하 박요한)** 2월에는 미국 LA에 있는 교회와 단체에서 콘서트 및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외에도 홀트패밀리로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출연, 대학원 공부, 외부 공연 등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바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죠.

**홀트** | 올 초에는 첫 솔로 앨범도 나왔어요, 2곡 외에는 직접 곡을 쓰셨는데,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하셨나요?

**박요한** |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곡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제가 작사·작곡한 8곡은 성경 말씀을 통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홀트** |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탓에 부담도 컸을 것 같아요. 앨범 수익금은 미혼한부모와 입양가족자녀에게 후원하실 계획이죠?

**박요한** | 저 혼자 활동하는 1인 기획사 체제다 보니 모든 걸 혼자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하고 싶은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앨범 수익금은 1차 판매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고(웃음), 적은 액수일 수 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홀트** |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CCM 가수로 활동하시는데다 이제 곡까지 직접 쓰시고, 또 몇 년 전에는 책도 내셨잖아요. 어린 요한이도 이런 쪽으로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나요?

**박요한** | 어린 시절부터 노래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저도 모르게 즐기는 게 아니었나 생각해보곤 하죠. 잘해서라기보다 늘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이 제 자존감을 높여준 것 같아요.

**홀트** | 라디오 진행하시는 걸 보면 꽤 코믹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유머러스하시기도 하고, 어릴 때 입양 사실을 알고 친구네 집으로 가출했을 때만 해도 친구네가 본인과 부모님보다 더 크게 싸우는 걸 보곤 ‘에잇, 시끄럽다, 덜 시끄러운 우리 집으로 가져!’ 결심하고 돌아갔다는 대목만 봐도 무척 심각한 상황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박요한** |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한 가지 고백하자면...,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개그 욕심 또한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하하.

**홀트** |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소년은 이제 넘치는 사랑을 사역을 통해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 홍보대사’와 ‘홀트패밀리’로 위촉 후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박요한** | 네. 특히 홀트의 경우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곳으로, 그 덕분에 너무나 큰 사랑을 누리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늘 빛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가족사랑예배를 시작하는 큰 이유가 되었는데,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고,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 노래와 고백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Interview

한번은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센터에서 만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마치 본능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저 역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곁에서 품어주고 바라봐주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 홀트 |** 홀트를 통해 생모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나를 낳아준 분과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 박요한 |** 솔직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게 어머니는 낳 키워준 분뿐인데 생모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첫인사는 어떻게 건네야 할까 등... 그런데 그 분을 보자마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와~ 우리 엄마 되게 예쁘네~”라는 말이 특 튀어나온 거 있죠? 저도 깜짝 놀랐던데요, 하하. 그리고 건넨 말이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였어요. 이번엔 더 놀랐죠.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건 ‘그때 왜 그러셨냐’였거든요. 입양 사실을 안 중학생 시절에 제가 힘들었던 건 ‘난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건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 원망과 불평, 상처가 더 이상 내 안에 남아 있지 않구나. 사랑의 힘으로 다 사라졌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 홀트 |** 입양가족이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입양자녀에게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핵심이 되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박요한 |** 입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충격적인 순간 저도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곁에서 저보다 더 아파하고 눈물 흘리신 제 부모님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사랑은 그 어떤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다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란 사실이었죠. 그리고 혹시 본인의 정체성이 입양자녀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며,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기적적인 확률과 사랑으로 만났는지 생각해볼 것.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 홀트 |** 매일 아침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한 박요한님의 요즘 기도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 박요한 |** 요즘 제 기도 제목 1호는 ‘노래한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주 노래하고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웃음)!

당분간 첫 솔로 앨범인 <예수, 나의 가장 큰 힘>을 통한 활동에 중점을 둘 거라는 박요한님은 자신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 역할을 기꺼운 마음으로 해내겠다는 그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한 자락의 희망이라도 더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홀트**



홀트가족사랑예배 문의 : 나눔협력팀 02)331-7144

## 제11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 아름다운 행복

### 공모주제 및 소재

“소중한 내 아이, 행복한 우리 가족”

- 입양으로 탄생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 국내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작품
-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입양으로 만나 ‘가족’이 되어 행복했던 순간들
- 기쁨과 아픔이 공존한 입양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 응모 마감 및 참가 자격

- 2017. 3. 31(금)까지, 입양가족 누구나

### 공모 분야 및 형식

- 사진 : jpg 형식 (2200×1500pixel 이상 권장)
- 동영상 : 창작 제작한 동영상(사진 편집 포함)으로 3분 내외 wmv, avi 파일
- 응모자 또는 가족이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으로 각 1인 2점 응모 가능

### 시상 내역

사진		동영상	
• 대상(1점)	50만 원	• 대상(1점)	100만 원
• 우수상(4점)	20만 원	• 우수상(2점)	50만 원
• 입상(5점)	10만 원	• 입상(7점)	20만 원

### 접수 방법

- 제출물 : 참가신청서(www.holt.or.kr에서 다운로드)와 응모작
- e-mail 접수 : 사진 / 동영상 sayholt@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 수상작 발표

- 2017년 4월 28일(금)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공모관련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171 / sayholt@hanmail.net

주최 :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 보건복지부 협찬 : (주)호텔롯데

**유의사항**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측이 갖게되며, 국내입양활성화 홍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 공모전 수상작(기존 수상작)은 응모할 수 없으며, 입상 후 확인 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가족의 형태 '입양'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에 가치를 두면서 생겨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홀트는 아동을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이라는 미션 아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중 시리즈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홀트의 가족복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입양가정'입니다.

###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5년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입양 당사자(아동, 양부모, 친생부모)와 가정법원 그리고 입양기관이 모두 아동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 입양을 진행하며 건강한 입양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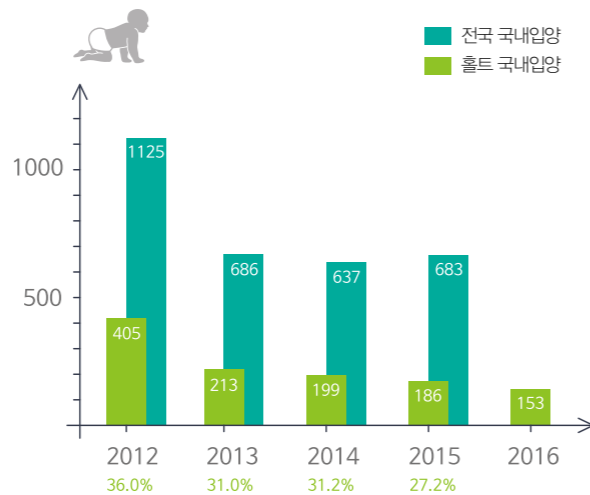
하지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동의하나 진행 과정과 절차에 몇몇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도 안에 녹아들고 있는 입양을 되짚어봅니다.



### 숫자는 줄었지만 인식은 긍정적

지난 4년간 국내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125명에서 2013년엔 686명으로 그 수가 거의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법원 허가제로 바뀌면서 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양부모의 자격심사 강화로 구비서류가 복잡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은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로 더 많이 혼란스럽고, 제도가 정착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꼽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전히 국내입양은 활성화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도 있습니다. 입양 자체의 숫자는 줄었지만 공개입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내입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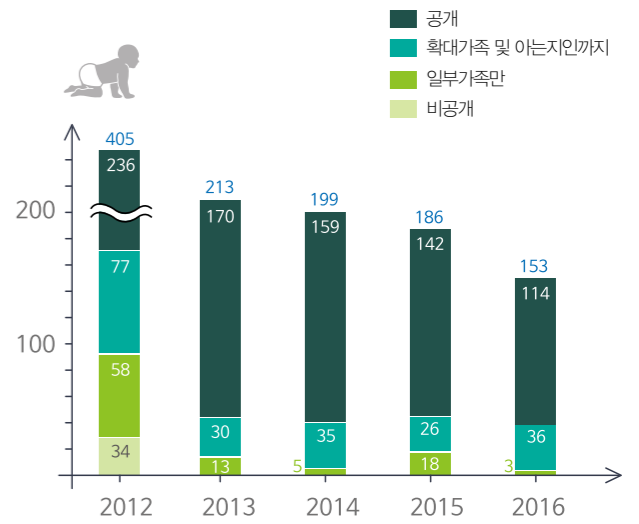
###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입양 특 사랑 특 토크'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며, 입양 부모 스스로가 아동 중심의 입양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입양문화가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생명은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정된 가정, 좋은 부모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입양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입양문화 속에 입양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동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 조선미 팀장 · 국내입양팀

예비  
입양부모를  
위한  
Q & A

### 국내입양 진행방법 현황



#### 입양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 →  
정보상담(전화, e-mail, 내방상담) →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우편, 방문상담) →  
상담 및 예비입양부모 교육이수 → 가정조사(2회) →  
아동결연 → 가정법원 입양허가신청 및 심판인용 확정 →  
입양신고 → 사후관리(1년)

#### 예비양부모 자격 조건 중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충분한 재산이라 함은 입양부모의 나이, 결혼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소득수준을 말하며 이와 함께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입양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는 입양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절차 진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12년 8월 법 개정 이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인용과 확정으로 입양이 완료되며, 가정법원의 진행소요기간은 법원마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균 소요기간은 3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이는 모든 상담 및 가정조사의 진행이 완료되고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 한 이후의 평균소요기간입니다.

#### 독신자의 입양도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령제한(35세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미만)과 진행과정 등이 양부모가 함께 입양하는 가정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자세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 및 아동의 양육환경, 주 양육자의 유무 등에 따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인연으로 엮인 소중한 사람들

## ‘인연을 엮다’ 해외입양인 캘리그래피 작품전

새해의 시작, 1월 3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 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홀트는 장애를 가진 해외입양인을 위한 모국방문 프로그램 'Happy Together(해피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는 미국과 덴마크에서 총 14명의 해외입양인과 그들의 가족·지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입양인의 과거를 찾아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연을 엮다’ 전시는 강병인 캘리그래퍼와 입양인 그리고 가족·지인이 한 글자씩 완성한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글귀처럼 장애와 혈연을 넘어 인연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전시였습니다.

- 1 강병인 캘리그래퍼
- 2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 해외입양인 작품전
- 3 2016년 가을 Happy Together에 참여중인 입양인과 가족,지인
- 4 환하게 웃고있는 모니카 맥밀런 그리고 마이클 맥밀런 부부



### 미국에서 온 편지

제 이름은 데렉 파커, 안혜진입니다. 저는 홀트일산타운 정문에서 발견되었고 말리 홀트 이사장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사랑해준 미국인이었지요. 저는 3세 때, 지금의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교회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세 아이를 두었고, 큰 은행의 매니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승진을 하면서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샌디에고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봄, 아버지와 동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말리 홀트 이사장님이 “해피투게더 2016”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오래 전 자신이 구해 주었던 아이가 성장한 어른이 된 것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홀트는 저와 같은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양가족들과 입양인들이 홀트 덕분에 가질 수 있었던 이 삶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한국 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발전한 나라인지 볼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기회였지요. 맛있는 한국 음식과 다양한 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가이자 캘리그래퍼인 강병인 선생님의 캘리그래피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독창적인 ‘한글’에 대한 열정적인 소개 후에 우리 이름과 다른 글자들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 전시회를 통해 영감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 국외입양인을 위한 ‘해피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입양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HOLT

## 잘자라 우리 한결이



### 매일 밤, 잠 못 드는 한결이

7살 한결(가명)이는 오늘 밤에도 두 눈을 말뚱말뚱 뜨고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동영상에 많이 봐서인가 싶어 아빠는 한결이를 혼내보기도 하고 타일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의 습관은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해져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또래보다 언어와 신체 발달이 느린 데다 피곤한 듯 잠만 자는 한결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한결이는 아버지와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 ‘잠을 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야’

한결이의 발달지연 정도와 밤새 잠을 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을 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야.” 상담 도중 한결이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사실 한결이의 엄마는 암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한결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결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팠던 엄마, 경제활동으로 늘 바빴던 아빠, 어린 누나들. 누구에게도 온전한 돌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사랑하는 엄마와의 이별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정을 한결이는 텔레비전과 휴대폰 동영상과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 심리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


불안감과 발달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심리·언어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한결이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잠시,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결이의 아버지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고, 대구 홀트심리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홀트에서는 한결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한결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 결과 내년까지 이용료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결이 나무에 날아드는 희망

최근 한결이는 마음 밖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 평가가 두려워 그림 그리는 것조차 망설이던 아이는 이제 용기를 내어 그림을 그립니다.

1 잠 못 드는 한결이  
2,3 심리치료 중 밝게 웃는 한결이



자신이 그린 나무에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가 놀러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세상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심리 치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 한결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홀트와 함께 든든한 나무가 되어준 많은 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나중에는 한결이가 편안하게 꿀잠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요? 

글\_김원태 · 대구심리상담센터

홀트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한결이와 같은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가 더 필요하지만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 홀트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 맘(Mom)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 (주)롯데리아 나눔 이야기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했던 우리 아기에게 이렇게 귀한 돌잔치를 선물해 준 많은 분과 롯데리아에 감사드립니다.” 돌잔치에 참여한 엄마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미혼한부모에게 아이의 돌잔치는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롯데리아와 홀트는 2016년 3월 미혼한부모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 첫 단추로 미혼한부모 자녀를 위한 돌잔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롯데리아의 자사브랜드(TGIF, KKD, 나뚜루, 빌라드살룻, 엔제리너스, 더푸드하우스)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한 돌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정의 미혼한부모와 아기들을 위한 돌잔치를 진행하였으며, 미혼한부모 100가정이 생일선물을 받았습니니다.

롯데리아는 돌잔치 뿐 아니라 미혼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롯데 봉사단'이 창립 37주년을 맞이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뜰의 미혼한부모 16명에게 영화 관람 및 쇼핑,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미혼한부모는 출산으로 단절되고 소홀해진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를 하는 미혼한부모의 학습 공간마련, 평소 외출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아기돌보미' 자원봉사도 진행했습니다.



1 미혼한부모 자녀를 위한 돌잔치  
2 고운뜰 미혼한부모를 위한 공부방 만들기  
3 2016년 대한민국 나눔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롯데리아

‘엄마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롯데리아의 노력이 빛을 발했을까요? 롯데리아는 ‘2016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롯데리아는 미혼한부모가 행복해지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사롯데 봉사단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롯데리아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많은 곳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HAET

글\_채성현 · 나눔협력팀



## 동료와 함께하는 나눔

### 국회에산정책처 · 한국해운조합

‘나눔’, ‘기부’라는 말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곤 하지요. 실제로 후원 동기 1위가 주변의 추천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함께하는 사람들 ‘직장동료’, 그들과 함께하는 나눔. 어색할 것만 같았던 자리가 미소와 기쁨으로 가득찼던 시간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양재시민의 숲’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살짝 굳은 얼굴에는 이내 이야기꽃과 함께 미소가 번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임직원의 걷기부 행사 ‘NABO Walk’ 모습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해 국회의 재정권과 입법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지원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이번 기부행사는 매년 진행되는 중무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동기가 중요하기에, 홀트 김대열 회장의 기관소개와 더불어 후원금이 어떤 곳에 사용될지를 설명한 후 조별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후원은 세 개의 각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인증도장을 찍고,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 마다 후원금이 배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걸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뿌듯함으로 가득찼습니다.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예상보다 많은 3,460,000원이었는데요. 모금함을 확인하던 담당자도 예상보다 많은 분의 참여에 연신 기뻐했습니다.



동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한 또 다른 기업은 한국해운조합입니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한국해운조합에서도 임직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모은 금액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 연말, 홀트를 방문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와 사내 자체 모금함을 만들어 모은 기금인데요. 소소한 사내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눔의 옷을 입혀 친근한 기부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한 소중한 결실입니다. 작게만 생각했던 행사를 통해 모인 금액은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눈은 녹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계절 각자의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눔의 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곳곳에 나눔이 있는 조직문화가 꽃피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HAET

글\_김유진 · 나눔협력팀



# 쌍둥이를 대신하여 홀트의 아이들에게

이항기 · 조숙자 후원자의 특별한 후원



이항기(제일 왼쪽) · 조숙자 부부와 자녀 찬유, 은유

첫 생일. 아이가 태어난 지 만 일 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일생을 축복하는 경사스러운 날이지요. 이항기 후원자는 쌍둥이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찾아온 두 아이가 잘 견뎌낸 열두달이 정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타인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두 아이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홀트의 아이들을 떠올렸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전합니다.



## 태어나자마자 겪은 혹독한 시련

부부가 되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만난 두 아이. 찬유와 은유. 쌍둥이 형제인 찬유와 은유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 만난 세상은 갇힌 세상이었습니. 첫째 찬유가 2.1kg, 둘째 은유는 0.9kg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은유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장 천공이라는 병으로 자그마한 몸으로 개복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자마자 겪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요.

## 인내의 소중한 열매를 홀트의 아이들에게도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겪은 찬유와 은유가 어느덧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 모두가 주위의 고마운 분들이 각각의 마음을 모아 여러 방면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 해가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들의 첫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쌍둥이의 아픔도 혹독했지만 친부모와 이별을 하는 홀트의 아이들 겪는 아픔이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힘이 있는데, 홀트는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선한 기관이라 믿고 있었기에 홀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상에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 사랑, 용서와 같은 것이 나눔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귀한 가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Holt

글\_이항기 후원자, 방은지 · 나눔자원팀



## 홀트아동복지회 특별한 후원



“찬유야, 은유야. 너희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너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인 홀트의 모든 아이들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포기하고 외면했다고 생각하진 말아주었으면 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홀트의 소중한 사람들과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바랄게”

나에게 특별했던 날이, 너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해요. 특별한 날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나누는 기쁨으로 두 배, 세 배의 행복한 날로 만들어요. 당신의 특별한 날은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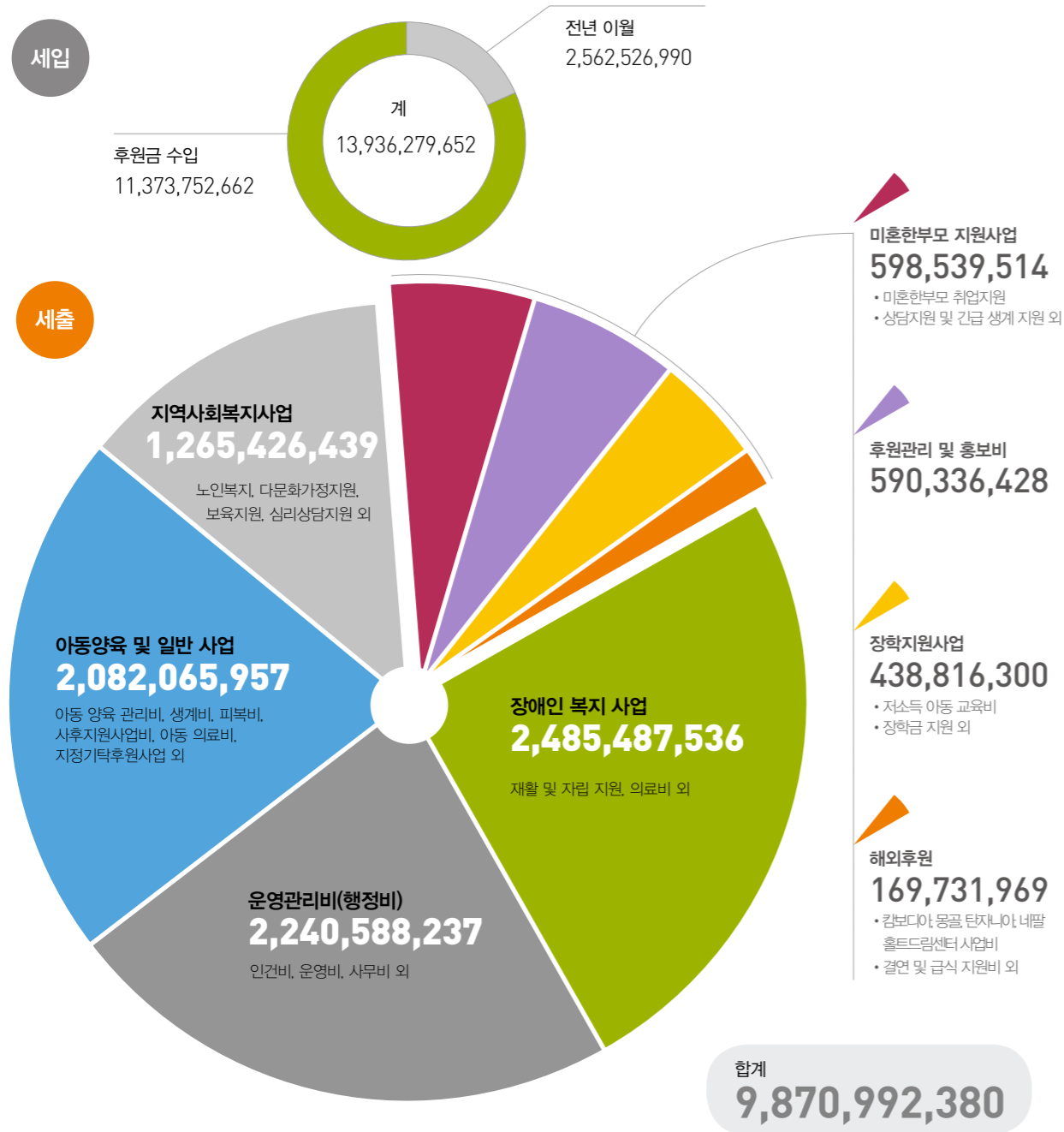
후원안내 02) 331-7071~7



# 2016 후원금 사용 보고

2016년 홀트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들로 국내·외에 나눔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홀트는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홀트를 믿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2016.1.1~12.31) 단위: 원



## 2016 홀트마을 나눔 이야기



13,609/8,342

해외 사업

13,609명 교육 / 8,342명 무상급식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해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의 홀트드림센터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했고, 무상급식, 분유지원, 의료봉사 등도 제공했습니다.



334/259

국내 사업

334명 아동 보호 / 259명 입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아픈 아이들을 홀트병원에서 치료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했으며,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323/182

323명 장애인 보호 / 182명 장애인 교육

홀트일산복지타운과 홀트학교에서 장애인 보호 및 재활, 교육 등을 펼쳤습니다.

20,395

20,395명 지역사회복지제공

전국 5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79

179명 미혼한부모 및 아동 보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자립을 꿈꾸게 하고, 261가정에 육아지원금 및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6,219 가정 지원

26,219

건강가정 ·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21/356,300,000

321명, 3억5천6백3십만원 장학지원

전국 저소득층 아동과 대학생 3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돕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사회공헌

팬콧, 써스데이아일랜드 의류 지원



2월 7일 팬콧과 써스데이아일랜드의 외투를 몽골과 네팔 아동에게 전달했다. 몽골의 평균 겨울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매우 혹독하며, 네팔은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아 추운 겨울을 보낸다. 외투 덕분에 아이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주)포유, 장난감 후원



1월 31일, 유통전문기업 (주)포유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주)포유는 1억원 상당의 장난감 및 생활용품 등을 후원했으며, 이는 입양대상 아동 및 미혼한부모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천사네트워크, 네팔 학교 건축 후원금



12월 26일, 수원지역 봉사단체인 '천사네트워크'에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네팔 툴라싸데비 초등학교의 교실 건축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학교 교실 건축을 통해 네팔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롯데홈쇼핑, 디어패밀리박스 기금 전달식



12월 22일,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디어패밀리박스 시즌 1' 종료 후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디어패밀리 박스는 애착인형을 만들어 아동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롯데홈쇼핑의 물류와 발송 등의 시스템 지원으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눔스토어, 캄보디아 빈곤가정 쌀 후원



12월 13일,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에서 캄보디아 빈곤 가정을 위한 후원해준 쌀 3톤을 빈곤가정 150곳에 전달했다. 나눔스토어는 해외 빈곤 가정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쌀, 밀가루 등의 식료품을 후원하고 있다.

(주)롯데리아 후원물품 기증



12월 8일, (주)롯데리아에서는 양육아동과 미혼한부모를 위한 물품을 후원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물품의 상·하차부터 캣거루스토어 진열까지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도 함께 했다.

본부

가족나눔교육 강사(패밀리 메이커) 위촉식



2월 15일 '2017년 가족나눔교육 신입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경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할 패밀리메이커가 되리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주한호주대사관 불맛이 선물



1월 26일 호주의 날의 맞이하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보습제품을 전해왔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과 많은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



1월 19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경희대 김은호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남기웅 센터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홀트 임직원은 해외빈곤아동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스타강사 설민석 도서 기증식



12월 27일, 설민석 강사가 대표로 있는 태건에듀와 도서출판 휴먼큐브는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전쟁의 신 이순신' 등 천만 원 상당의 도서 700권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증했다. 이 도서는 저소득 가정과 아동보호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사무소

부산사무소, 탐리더스 신입위원 위촉

2월 14일 부산사무소 후원자인 탐리더스 신입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신입 위원으로는 유한회사 소미노의 정원호 사장, 서지연 이사 그리고 스튜디오지 어영진 대표가 위촉되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다.

대구사무소, 노보텔 엠버서더 후원금 전달



1월 18일 홀트대구복지센터에서 노보텔 엠버서더 임직원들이 실시한 모은 기금을 홀트에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후원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충청사무소, '홀트 멋진 아빠들 모임' 조직

1월 21일 입양부로 결성된 '홀트 멋진 아빠들 모임'을 실시하였다. 입양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모임을 실시하고 입양가족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인천사무소, 입양 후 부모교육



입양 후 부모교육을 2월 9일에 실시했다. '엄마,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입양부모 교육을 하는 동안, 아동을 위한 미술놀이와 쿠킹클래스도 함께 진행됐다. 이 아동프로그램에는 인천심리상담센터의 심리상담사가 함께했다.

전북사무소, 한사랑회 연말 가족모임



홀트전북 한사랑회는 12월 17일 전북사무소에서 연말 맞이 모임을 가졌다. 총 10가정(25명 참석)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 하며 올해에는 전북 한사랑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일산복지타운

홀트 민속놀이 잔치

2월 13일,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산복지타운·요양원 생활자들과 함께 '제 28회 홀트민속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세배를 하며 한해를 맞이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장애인복지관, 정유년 설 명절 음식나눔행사



설을 맞이하여 1월 25일 고양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110가정에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주말개그클럽회와 30사단 정보통신대대 등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떡국, 떡볶이, 만두 등 음식을 준비하여 소외된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운봉복지관, 넥센월석문화재단 쌀 기부



1월 17일 KNN 넥센월석문화재단과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하여 3천만 원 상당의 쌀 858포를 기증받았다. 넥센월석문화재단 강병중 이사장, 백선기 구청장,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기증받은 쌀은 어르신과 경로식당에 전달되었다.

# HOLT NEWS

2017 Spring

## 하남복지관, 착한이웃 1호점 현판 전달식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복지관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온 하남도사공사가 착한이웃 1호점으로 선정이 되어 2월 6일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복지관은 앞으로 사회공헌 및 후원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착한이웃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수영복지관, 직업체험활동



12월 7일 망미초 꿈나무나눔실천교실 참여 아동, 우리복지관 꿈과희망지원 아동,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27명과 함께 키자니아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고 진로체험을 위해 진행된 이 활동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본리복지관, 웃놀이 한마당



2월 20일 4층 강당에서 '웃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속놀이체험과 주민 대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 140명 정도가 참여하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웃고 즐기고 때론 아쉬워하며 함께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아침粥, 미혼모자 인식개선 사진·영상 공모전



미혼모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최한 '스미일~ 찰칵! 미혼모자 인식개선 사진·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이 12월 14일 아침粥 후원회 '나무새' 김소현 회장과 100여 명의 미혼모자 가족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상식 후에는 수상자와 재가미혼한부모와의 자조모임이 진행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 고운들, 홀트고운학교 졸업식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학교인 홀트고운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4명의 학생 졸업식이 2월 10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참석하여,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마친 학생들을 격려했다.

### 아름들, '새로운 시작' 설맞이 행사



1월 23일 아름답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설맞이 웃놀이를 진행했다. 팀을 나눠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동안 팀원끼리 응원전이 치열하였지만 웃음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대구클로버, 송년파티 개최



12월 27일 대구클로버에서는 미혼한부모와 달구벌 후원회가 함께하는 '미당발(마주않은 당신의 발전을 위한) 파티'가 열렸다. 이날 송년파티에는 선물 전달식과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내년에도 역량을 향상할 것을 다짐했다.

### 대전클로버, 새마을회 명절 행사



대전클로버와 새마을회에서는 설을 맞이하여 미혼한부모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잡채와 떡국, 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를 함께 만들고 나누며 아동들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열어

12월 1일, 센터에서 한국어말하기 대회와 한국어능력 성취도평가를 진행했다. 결혼이민자들의 신나는 난타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2명의 참가자가 각자의 시연을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 시상식은 프로그램, 개강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12월6일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가족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센터 사업보고 및 영상시청, 공연을 함께 보며 개소 10주년을 축하했다.

## 전주영아원

### 제11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12월 17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도내 16개 시설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재능의 발휘 기회 마련을 위한 제11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3명의 원아들이 귀여운 율동을 선보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은 뜻깊은 예술제였다.

## 어린이집

### 중동어린이집, 천문대 졸업여행



12월 16일 졸업여행으로 천문대를 다녀왔다. 야광펜으로 별자리를 찍으며 성도 수업도 하고 입체영화관에서 3D영화를 관람하였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대기로 가서 천체망원경으로 감 감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 마포어린이집, '정글 대탐험' 단체 견학



1월 19일, 일산 킨텍스 '정글 대탐험' 단체 견학을 다녀왔다.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뱀, 이구아나, 앵무새, 육지거북, 돼지 등을 관찰해보고 직접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동물을 배려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 홀트어린이집, 민속잔치 열어



1월 24일 홀트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민속잔치를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고 함께 떡국을 먹었다. 또한 민속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은방울어린이집, 즐거운 산타 잔치



12월 23일, 즐거운 산타잔치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며,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기회가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월 13일, 16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사립유치원 교원 32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

## 후원회

### 대전후원회 제37회 정기총회 실시



대전후원회는 2017년 1월 17일, 제37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실시하였다. 영지원 신임후원회장 선출 및 업무계획 수립하였고 신년업무보고차 대전을 방문하신 말리 이사장님과 김대열 회장님 및 직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앱 OPEN!**

여러분과 더 가깝게 만나고자  
모바일 앱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홀트아동복지회 소식을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향기나는 결연  
**허브**



홀트아동복지회 선 홍보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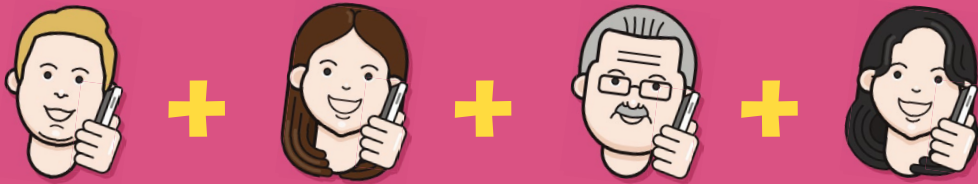
국내 해외 아동결연 후원문의

**HERB & HUB 1899-0923**

# 같이 살지 않아도 U+로 합쳐라!

## 가족끼리 모이면 매월 최대 44,000원 할인받는 U+가족무한사랑

※ 가족 결합 4인 월정액 48,400원 이상 요금제 사용 및 가족합산 사용기간 30년 이상 기준



### +할인혜택 1

같이 살지 않아도 최대  
4명까지 **가족결합할인!**

	가족 한 명당	가족 합산 금액
둘이 모이면	3,300원	<b>월 6,600원 할인</b>
셋이 모이면	4,400원	<b>월 13,200원 할인</b>
넷이 모이면	5,500원	<b>월 22,000원 할인</b>

※ VAT 포함, 순액 48,400원 이상 요금제, U+모바일 결합 기준

### +할인혜택 2

가족끼리 합쳐 15년 이상이면  
**장기고객할인!**

가족 합산 U+ 사용기간		
15~29년	월 가구당	<b>11,000원 할인</b>
30년 이상	월 가구당	<b>22,000원 할인</b>

※ VAT 포함, 신규 가입일로부터 사용기간(일시정지, 이용정지기간 제외)

| 가입안내 | · 최소 2회선부터 최대 4회선까지 결합 가능합니다 (1인 1회선만 결합 가능) · U+ LTE를 사용하는 1인을 가족 대표인으로 지정하고 가족 대표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인 경우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 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